

화순백신산업특구, 지정 기한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

화순군 요청에 중소벤처기업부 수용 사업비도 4564억1700만원으로 증액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인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지정 기한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 화순군에 따르면,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특구 연장이 필요하다는 화순군의 요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용해 지정 기한이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와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클러스터' 일대 94만1731.5㎡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화순군은 애초 2020년까지였던 특구 지정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도 4411억1000만 원에서 4564억1700만 원으로 153억여 원을 증액해 특구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지난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지정 기한 연장으로 특구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백신·생물의약품 기반 사업의 특례 적용 기간이 연장됐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면역 세포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 혁신형 AI기반 바이오 임상지원센터 구축, 전남대병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출입국관리법, 특허법, 의료법 등 여섯 가지 규제 특례가 3년간 더 적용된다. 화순백신특구는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로 '의약품 연구개발 → 비 임상 → 임상 → 의약품 제조 → 인허가'까지 생물의약품의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백신특구는 백신·생물의약품 집적화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차세대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백신특구 지정 기한 연장으로 차세대 백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품,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 지원센터 등 기반 확충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백신특구가 K-방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차세대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산림특구로 '의약품 연구개발 → 비 임상 → 임상 → 의약품 제조 → 인허가'까지 생물의약품의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백신특구는 백신·생물의약품 집적화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차세대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백신특구 지정 기한 연장으로 차세대 백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품,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 지원센터 등 기반 확충이 원활하게 추진될



화순백신산업특구.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학령기 자녀 둔 학부모 성교육 강좌 실시

구성에 강사 초청...40명 대면·100명 온라인 화상 교육



나주시는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성교육 전문가 구성에 강사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성교육 강화를 실시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초·중등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기동취재본부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에 따라 수강 신청인 140명 중 40명에 한해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100명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구성에 강사는 '성교육! 속 시원한 대화법'을 주제로 '유아 발달 단계의 이해', '시대 변화와 초등시기의 이해', '초등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성교육 기꺼이 대답해 주기', '청소년기의 음란물', '사춘기 잘넘기기' 등 연령·주제별 성교육 노하우를 제공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학령기 자녀의 성 교육 문제로 고민했던 학부모들이 속 시원한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에 부합하는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멜론, 서울국제식품산업전서 홍보

곡성군이 제15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해 대표 특산물인 곡성멜론을 홍보했다.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전국 각지의 400개사가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국

온라인 소비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몰 바이어와 상담을 추진하며 새로운 판로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2020년에 완공될 곡성멜론복합체험센터와 멜론마을을 홍보해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온라인 소비확대 대응위해 온라인몰 바이어 상담 추진
올해 완공될 곡성멜론복합체험센터와 멜론마을도 홍보

내 우수 브랜드가 총 집합하는만큼 전국의 식품소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올해 제15회 국제식품산업전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곡성군은 이번 국제식품산업전에 참여해 바이어 및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곡성멜론과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 "새로운 판로를 구축해서 멜론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제15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전략적인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지역 상권 확실하게 살린다"

장성호 관광 수요의 지역 상권 연계를 위해 장성군이 추진 중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가 시행 이후 팔복할 만한 성과를 냈다.

상품권 교환제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방문객이 교환소에 3000원을 내면 동일한 금액의 지역 화폐(장성사랑상품권)로 돌려주는 제도다. 돌려받은 상품권은 수변길마켓 등 장성지역 1500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주말·주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주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 장성군민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군인, 학생 등은 교환 절차 없이 입장 가능하다.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변길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약 1/3 수준인 17회만 운영됐다.

교환제 운영 중 방문객은 4만1277명으로, 이 가운데 73%인 3만여 명이 상품권 교환 방문객이었다. 총 매출액은 약 9000만원 규모다.

교환된 상품권은 수변길과 지역에서 고르게 사용됐다. 수변길 내부(수변길마켓, 출렁정, 낚시정)에서 52%, 지역 식당 및 점포에서 48%가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운영 횟수가 적었음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감염병 상황이 진정되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담양군 "겨울방학, 취업준비 위해 대학생 인턴 참여하세요"

담양군이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겨울방학 중 대학생 인턴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관내 대학생들이 직장생활 체험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인턴사업은 올해 11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취업 특강을 운영하는 등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참여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참여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

풀뿌리경제과 및 읍면사무소에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인턴은 2021년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6주간 근무하며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이 용자 발열체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한다. 담양=박종영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